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 과장된 인식과 자기 편향을 중심으로

박 순 진**

국 | 문 | 요 | 약

이 논문은 범죄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서 발견되는 과장된 인식과 자기 편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범죄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사회현상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은 범죄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범죄는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인데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은 현상의 객관적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의 편향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를 평가하게 한 결과 공식통계 또는 범죄피해조사 결과와 달리 범죄가 증가하였다는 평가가 우세하였으며 범죄추세를 과장되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와 살고 있는 동네를 비교해보면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가 우세한 반면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여 범죄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는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논문에서는 범죄발생 추세의 평가에서 드러난 이런 특징을 과장된 인식과 자기중심적 편향으로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논의하고 탐색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 주제어 : 범죄피해조사,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 전국의 범죄발생 추세, 범죄추세의 과장된 인식, 자기중심적 편향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I.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최근 들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엄벌주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지만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과 강력한 범죄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형사정책의 방향과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실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일반인의 인식은 형사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정책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범죄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범죄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박경래 · 김용호 · 최성락 · 김수동 · 성우제 · 임혜준, 2011; Cohen, 2000; Davis & Dossetor, 2010).

통계청(2008)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 발생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박순진 · 최영신, 1999; 최인섭 · 기광도, 1998;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최인섭 · 박순진, 1995). 이를 보면 대다수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범죄 문제에 대한 인식은 범죄문제에 대한 실태에 비하여 과장된 듯이 보인다.

일반인들은 범죄 사건에 연루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대부분 형벌과 처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범죄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는 형벌과 처벌을 둘러싼 생각과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처벌의 억제 효과는 일반인이 가진 범죄에 대한 생각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신동준, 2009; 이성식, 2000).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법률과 규범에 순응하는 행동을 하는 기저에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내면화한 법률과 규범, 달리 말하면 형벌과 처벌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 비해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비교적 안전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범죄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는 비교적 낮은 확률로 일어나므로 가해자로서든 피해자로서든 일반인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 또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는 범죄의 객관적인 실태에 못지않게 일반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과 집행에 중요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의 하나인 범죄 현상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범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도 낮은 빈도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개별적 경험을 근거로 하여 전체적인 추세를 추론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범죄발생의 실태와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다.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요인에 의하여 설명이 필요한 탐구 주제라 할 수 있다.

구미 각국에서는 일반인의 범죄 인식이 형사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거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북미에서는 범죄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범죄가 증가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guire & Pastore, 1999).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한 영국의 연구에서도 경찰에 추계된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

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ough & Roberts, 2004). 호주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2007년 경찰에 집계된 주요 강력 범죄는 10년 전에 비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범죄율과 범죄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이런 공식 통계 상의 추세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Davis & Dossetor, 2010; Roberts & Indermaur, 2009; Weatherburn & Indermaur, 2004).

일반인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 추세에 대한 인식에는 두 가지 갭(gap)이 존재한다. 하나는 실제 범죄와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사이에서 발견되는 갭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적인 차원과 비교하여 그들 자신이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평가에서의 갭이다(Duffy, Wake, Burrows & Bremner, 2008: 24). 사람들은 실제로는 범죄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일반인의 추세인식은 공식 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는 포괄하는 공간 범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사람들은 전국과 같은 넓은 범위에 비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같은 좁은 범위의 범죄 발생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한다.

일반인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이 공식통계의 집계나 범죄피해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김지선 · 홍영오, 2011; 조은경, 1997;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최인섭 · 박순진, 1995). 일반인들은 한편으로는 범죄가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 발생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신의 일상생활 공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막연한 인식을 갖는다.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한편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범죄의 객관적인 실태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추세의 인식에서 발견되는 갭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면서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거나 충분히 분석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부재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새삼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독특한 방향성이 있으며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거의 모든 사람 사이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이것은 범죄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정확한가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문제이다.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무작위적이지 않고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갖는 특징을 분석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 논문은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먼저, 국내에서 다년간 실시된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과장된 인식과 평가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본다. 다음으로 범죄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이 어떤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논의할 것이다.

II. 이론적 검토

1. 도구적 설명과 표출적 설명

일반인의 범죄 현상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 인식론의 논쟁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즉 도구적(instrumental) 설명과 표출적(expressive) 설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Jackson, 2004; King & Maruna, 2009; Tyler & Boeckmann, 1997).

도구적 이론에 따르면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범죄와 범죄 피해에 대한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범죄와 무질서 때문에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태도는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이거나 직접 범죄 피해자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표출적 이론에 따르면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적-감정적 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실제 위협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이 이론에서는 범죄와 사회 변화의 문화적 의미, 범죄를 유발하는 조건과 같은 넓은 사회적 관심에 주목한다(Jackson, 2004).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확실성이 침식되면서 확산되는 불안감 또는 존재론적 불안전 때문에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범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거나 통계나 자료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 넓은 맥락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Duffy et al., 2008: 25).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범죄 개념은 공식적으로 규정된 범죄라는 좁은 의미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사회 문제에 대한 폭 넓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태도 역시 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친정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국가적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반정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국가적 상황을 악화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도구적 이론에서는 범죄 피해의 경험, 범죄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시하는데 비해 표출적 이론에서는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느낌, 이웃 주민들에 대한 신뢰 수준, 아동에 대한 관심과 불안 등과 같은 요인들이 일반인의 범죄 인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King & Maruna, 2009).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범죄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를 보인다(민수홍, 2011; Gibbson, Zhao, Lovrich & Gaffney, 2002).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사회통제와 무질서 수준도 개인의 범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이성식, 2000; LaGrange, Ferraro & Supancic, 1992). 사람들은 한 지역 내에서 사회적 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무질서의 징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거나, 사회에서 통제력을 발휘하던 메커니즘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범죄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은 범죄의 두려움이 범죄의 객관적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주관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2. 언론 매체의 영향

사람들은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 가용한 정보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때 어떤 요인들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보다 가치 있거나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Brown, 2004). 범죄는 모든 개인이 경험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범죄문제에 대한 개인들 간의 의사소통과 매스 미디어에서의 범죄보도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병기 · 이기웅, 1995).

범죄에 대한 인식은 범죄정보 획득매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이병기 · 이기웅, 1995). 언론 매체를 통해 획득된 정보는 전국의 범죄추세를 과장되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거나 대면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에 비해 대중매체로부터 얻는 정보는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특징이 있으며, 사회 현상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를 갖게 한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언론 매체에 크게 의존한다. 그 결과 범죄문제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불안요인으로 생각하고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국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TV와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에 의하여 획득된다(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박순진 · 최영신, 1999; 최인섭 · 박순진, 1995). 일반인은 공식통계나 전문가 의견보다 주로 TV와 신문을 통하여 범죄 정보를 획득한다. 대중매체는 그 특성상 선별 매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현상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중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역시 사물이나 현상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더피 등(Duffy et al., 2008: 25)은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확한 인식이 미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범죄 보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TV와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범죄와 사건 · 사고를 일상적으로 보도하는데, 특히 심각한 범죄일수록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보도하는 특출한 사건은 사회 전체로 보면 끊이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보면 두드러진 사건은 항상 존재하므로 범죄는 항상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사건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가 흉악하고 심각해진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Innes, 2004). 특출한(salient) 사건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물들 사이의 허위적 상관 또는 상관 착각을 하게 한다(성한기 · 박순진, 2005: 40).

3. 주관적 인식의 자기 편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현상을 가능하면 회피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범죄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일반인들은 범죄를 자신과 무관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치부하고자 하며 자신의 주변에는 범죄처럼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믿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Warr, 1995). 이런 경향은 인간 인식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Smith(1998)는 지역과 전국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인식의 겉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중심적 편향을 ‘고향 편애(hometown favouritism)’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그 연장선에서 다른 공동체들로 구성된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가치와 행동을 공유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인식에서 발견되는 자기중심적 편향은 근본적 귀인 오류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설명에서 발견되는 근본적 귀인오류는 사람들의 판단이 다분히 주관적이며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이나 자신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일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려는 자기-고양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Scully & Marolla, 1984).

사람들은 자신이 목격한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요인과 기질적 특성으로부터 찾는 경향이 강한 반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외적 요인과 상황적 특성으로부터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Walster, 1966).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연루된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결과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Lerner & Miller, 1978).

대인 관계나 대인 평가에 있어서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려는 편향은 긍정적 자기를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된다(Ross, Lepper & Hubbard, 1975; Ross & Sicoly, 1979). 대면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 자아보존 또는 권위보존이 폭력범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박순진, 1999; 이성식, 2003; Felson, 1978; Luckenbill, 1977). 대면 상황에서 행위자들이 고수하는 ‘체면’, ‘남자다움’ 등으로 대별되는 문화적 가치는 범죄자의 폭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박순진, 1999; Polk, 1994).

사회적 상황에서 귀인의 개인 차이와 대인 평가에서의 자기고양 편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개인의 기질적 요인 내지 사회구조적 위치는 근본적 귀인오류 내지 자기고양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개인의 기질적 특징과 사회구조적 위치는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에서의 개인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일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추세 평가의 불균형에도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획득된 정보의 검증 가능성도 일반인의 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의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표현하는 공간적 범주에 따라 차별적이다. 살고 있는 동네의 상황과 관련하여 얻어진 정보는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그 진위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검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와 같이 넓은 범위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험 범주 내에서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한 정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인접하거나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한다(Brantingham & Butcher, 1986). 일반인들은 직접 경험할 수 없고 검증하기 어려운 공간 범위에 해당하는 우리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범죄가 심각하거나 증가한다고 믿는다. 반면 직접 경험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공간 범위에

해당하는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험이나 친구, 이웃, 가족 등이 전하는 정보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더피 등(Duffy et al., 2008: 25)은 전국과 지역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순전히 통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치 자체만을 놓고 보면 지역의 범죄발생 건수는 작은 수로 표현되는데 비해 전국의 범죄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큰 수로 표현된다. 지역 사회에 비해 전국적인 범죄 발생율이 낮은 경우에도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수치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우려할 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4. 연구문제의 설정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외국의 연구에서 발견된 특징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범죄추세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범죄의 객관적 실태를 비교 검토한다. 범죄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갭을 확인한 후에는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일반인의 범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응답자의 특성, 범죄피해의 경험, 범죄피해 가능성과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공동체의 유대와 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 동네와 사회의 안전감, 범죄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 등의 요인들이 범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III.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1. 범죄추세에 대한 과장된 인식

범죄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1994년부터 2011년까

지 2-3년 간격으로 모두 일곱 차례의 조사가 실시되었다.¹⁾

일곱 차례의 조사 가운데 1994년 조사, 1997년 조사, 1999년 조사, 2003년 조사, 2006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최근 몇 년 사이 범죄발생 추세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이를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에 대해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증가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감소한 편이다’, ‘크게 감소하였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2009년 조사와 2011년 조사에서는 작년 한해와 비교하여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은지 아니면 감소할 것 같은지를 묻고 이를 우리나라 전체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수준에 대해 각각 ‘매우 감소할 것’, ‘감소할 것’, ‘변화 없을 것’,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로 평가하게 하였다.²⁾

<표 1>은 다섯 개 연도의 범죄피해조사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를 보면 크게 증가하였다거나 증가한 편이라는 응답이 66.5%~90.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8.3%~25.8%이고 크게 감소하였다거나 감소한 편이라는 응답은 1.7%~7.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 결과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반면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 1)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는 연도에 따라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지만, 표본수, 표집틀, 질문지의 구성, 질문 항목 등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표본수 2,000은 범죄피해를 추정할 위한 목적으로는 충분히 크지 않지만 일반인의 주관적 인식을 연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2008년 조사부터 표본수, 표집틀, 조사 항목과 질문 문항 등을 전면 개편하였기 때문에 개편 전후의 조사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 2009년 실시한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I)’에서 범죄피해조사를 전면 개편하면서 일반인의 범죄 인식에 대한 질문 문항이 과거의 범죄발생 추세를 평가하는 것에서 장래의 범죄발생 추세를 예측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09년 이후 조사를 종래의 조사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비교를 위하여 조사 결과를 하나의 표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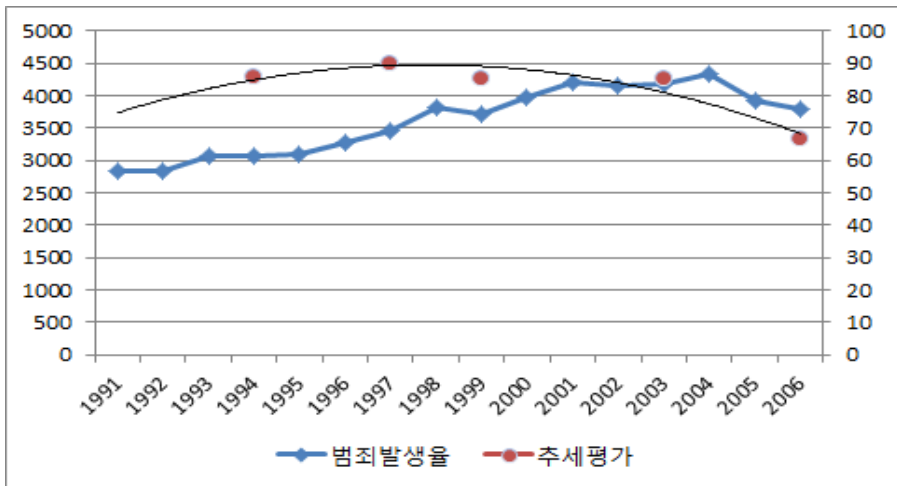
〈표 1〉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전체

단위: %(N)

구 분	1994년	1997년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1년
크게 증가하였다	36.2	42.0	28.8	27.9	11.4	9.5	5.1
증가한 편이다	49.3	48.0	56.4	57.4	55.1	66.4	56.3
그저 그렇다	10.5	8.3	12.6	12.7	25.8	18.2	26.9
감소한 편이다	3.8	1.4	2.2	1.7	6.8	5.5	11.0
크게 감소하였다	0.2	0.3	0.0	0.3	0.8	0.5	0.7
합계 (응답자)	100.0 (2,026)	100.0 (2,039)	100.0 (2,099)	100.0 (2,046)	100.0 (2,055)	100.0 (10,671)	100.0 (16,557)

주) 2006년까지는 과거의 추세를 평가, 2009년부터는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게 한 것임.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에 대해 2009년 조사부터는 미래에 예측되는 추세를 물어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조사 결과 측정 문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응답 패턴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를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응답은 2009년 75.9%, 2011년 61.4%로 각각 집계되었다.



〈그림 1〉 공식통계의 범죄율과 추세 평가(증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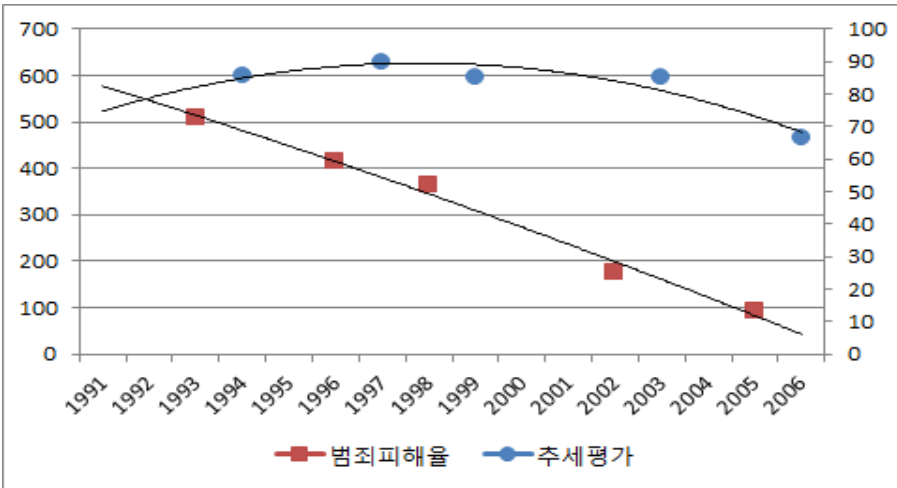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 증가하였다고 평가한 응답이 대부분인 조사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며, 범죄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검토해보도록 하자. 먼저 일반인의 인식을 공식 통계에 집계된 범죄발생 추세와 비교해보자. <그림 1>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하여 증가하였다고 평가한 일반인의 비율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집계된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와 함께 표시한 것이다.

공식통계에 집계된 범죄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대략 199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5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범죄추세에 대해 증가하였다고 평가한 일반인의 응답을 보면 2003년 조사까지는 80%를 넘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최근 몇 년 사이 범죄가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그 비율이 다소 낮아져 65% 이상의 응답자가 최근 몇 년 사이 범죄가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일반인의 범죄추세 인식과 공식통계의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범죄발생 추세가 연도별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지만 일반인의 추세 평가는 시종 일관 증가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둘째, 일반인의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를 조사 실시 연도 기준으로 직전 2-3년 동안의 범죄발생율과 견주어 살펴보면, 1997년에는 범죄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4개 연도에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말하기 어렵다. 셋째, 범죄추세를 증가한다고 본 일반인의 평가와 공식통계 상의 범죄발생율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추세에 있어서 두 가지 추세는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인의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는 공식통계와는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인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조사에서 집계된 범죄피해율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2>는 일반인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을 범죄피해조사 결과 집계된 응답자 1,000명당 범죄피해율과 비교해본 것이다. 그림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하여 증가하였다고 평가한 일반인의 비율과 다섯 차례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한 여덟 가지 범죄 유형을 합친 범죄피해율을 제시하였다. 1993년 이래 범죄 피해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가운데 2/3 이상은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일반인의 범죄추세 평가는 범죄피해조사 결과 집계된 범죄피해의 추세 변화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범죄 피해율과 추세 평가(증가)의 비교

그림에 제시한 기간 동안 공식통계에 집계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은 연도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범죄피해조사에서 추정된 범죄피해율은 공식통계와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자료 가운데 어느 것이 범죄발생의 추세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박순진, 2003; 황지태, 2009; 황지태, 2010). 그러나 어느 것이 범죄의 실태를 더 반영하든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범죄발생 추세의 변화와는 상대적으로 독립될 뿐만 아니라 다소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 즉,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범죄발생의 객관적인 실태와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범죄 발생 추세를 과장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2. 전국과 동네 추세 평가의 불일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

생 추세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다. <표 2>는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연도별로 요약한 것이다.

<표 2>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 살고 있는 동네

단위: %(N)

구 분	1994년	1997년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1년
크게 증가하였다	5.6	6.0	3.8	2.3	1.0	2.7	1.3
증가한 편이다	21.8	29.6	25.9	17.6	18.1	34.2	25.5
그저 그렇다	58.3	57.5	62.1	61.5	61.0	51.5	55.0
감소한 편이다	11.3	5.9	6.7	12.5	15.9	9.1	16.4
크게 감소하였다	3.0	0.9	1.5	6.2	4.1	2.5	1.9
합계 (응답자)	100.0 (2,013)	100.0 (2,036)	100.0 (2,096)	100.0 (2,032)	100.0 (2,044)	100.0 (10,671)	100.0 (16,557)

주) 2006년까지는 과거의 추세를 평가, 2009년부터는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게 한 것임.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7.5%~62.1%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크게 증가하였다거나 증가한 편이라는 응답은 19.1%~35.6%이며, 크게 감소하였다거나 감소한 편이라는 응답은 6.8%~20.0%로 각각 집계되었다. 일반인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가 절반을 상회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하였다는 평가와 감소하였다는 평가 중에서는 증가하였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표 1>과 <표 2>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 일반인은 살고 있는 동네와 우리나라 전체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서는 증가한 편이거나 크게 증가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비하여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가 과반수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된 상당 기간 동안 실제 범죄발생의 추세가 연도별로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표 3〉 전국과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의 비교

단위: N(%)

구 분	1999년	2006년
전국의 범죄발생 추세를 더 증가한 것으로 평가	1,440 (68.7)	1,192 (58.3)
전국과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를 비슷하게 평가	594 (28.3)	763 (37.3)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를 더 증가한 것으로 평가	62 (3.0)	89 (4.4)
전 체	2,096(100.0)	2,044(100.0)

<표 3>은 1999년 및 2006년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여 3개의 범주로 분류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를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 보다 증가한 것으로 평가한 사람이 68.7%와 58.3%인 반면,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를 비슷하게 평가한 사람은 28.3%와 37.3%이고,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를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 보다 증가한 것으로 평가한 사람은 3.0%와 4.4%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1999년과 2006년 모두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비해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이것은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자기 주변의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와 같은 넓은 범위의 환경에 비해 살고 있는 동네와 같은 좁은 범위의 직접적인 환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지적 편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가 포괄 범위에 따라 차이가 보이며 불균형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리적으로 가능한 설명을 생각해기로 하자. 첫째,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 조사 대상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범죄가 적게 일어나고 적게 보고되는 것이 객관적인 현상에 부합할 수 있다. 이는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지역 거주자가 우연하게 과다 표집된 경우

에 가능한데, 범죄피해조사의 표집이 편중되지 않았으며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는 없으므로 평가의 불균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둘째, 개별 응답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외부적인 왜곡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반복적으로 부각시킬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이론의 검토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회귀분석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해보기로 한다.

셋째, 일반인들의 인식에 있어서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지적 왜곡이 존재할 수 있다. 사물에 대한 인식에서 발견되는 인지적 편향은 인간 인식의 고유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범죄문제와 같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진 사회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범죄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사람들의 인식에서 포괄 범위에 따른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인의 인식에서 발견되는 불균형 내지 자기중심적인 특성은 범죄 현상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비해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통계청의 사회조사(2008)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그 괴리가 무작위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물을 인지하는 인간 정신과정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타인 보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지적 편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인 평가에 있어서 일반인의 이러한 편향성은 심리학에서 논의하는 근본적 귀인요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난 인식의 불균형을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의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파악하고자 한다.

IV. 과장과 편향에 대한 분석

1. 자료와 변수의 측정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에서 관찰되는 특징 가운데 눈에 띄는 한 가지는 실제 범죄에 비해 과장된 평가이며, 다른 한 가지는 살고 있는 동네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인이 갖고 있는 불균형 또는 부조화인데,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여덟 번의 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었다. 같은 시기 동안 범죄추세가 증가-감소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인식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서 확인된 두 가지 특징, 즉 과장된 인식과 평가의 자기 편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개 연도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요인이 이런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2006년 이전 자료들은 표본의 수나 조사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조사 연도의 중간인 199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³⁾ 범죄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평가하였다.

종속변수는 범죄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서 드러난 두 가지 특징, 즉 범죄추세에 대한 과장된 인식과 인식의 편향이다.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과장된 인식은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를 증가한다고 평가하는지 여부로 파악하였다. 앞의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국의 범죄발생 추세를 증가하였다고 평가한 것을 범죄발생 추세를 과장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증가한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에 변수값 1을 부여하고 그 외의 응답에 대해서는 변수값 0을 부여하였다.

3) 종래의 조사와 달리 2009년과 2011년에 조사에서는 장래의 범죄추세를 예측하게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실제 범죄추세에 비해 과장된 인식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과거의 범죄추세를 평가하게 한 자료들이 장래의 범죄추세를 예측하게 한 자료보다 이 논문의 관심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의 편향은 전국에 비해 동네의 범죄추세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로 파악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를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평가가 우세한 인식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불균형의 양상은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의 자기중심적 편향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측정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5점, ‘증가한 편이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감소한 편이다’ 2점, ‘크게 감소하였다’ 1점으로 각각 변수 값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 점수가 커질수록 범죄 현상을 부정적이고 회피하고자 하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의 불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한 범죄발생 추세 평가의 불균형은 논리적으로 최소 -4, 최대 4의 범위를 갖는다. 분석 결과 실제 자료에서는 최소 -2, 최대 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마이너스 값은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가 덜 증가하였다고 평가한 것을, 플러스 값은 동네의 범죄발생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발생 추세가 증가하였다고 평가한 것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발생 추세 평가에서 살고 있는 동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기중심적 편향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값에 대하여 변수값 1을 부여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변수값 0을 부여하여 범죄추세 인식의 자기중심적 편향 여부를 판단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앞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선택하였다. <표 4>는 주요 독립 변수의 측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변수와 더불어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표 4〉 주요 변수의 문항과 측정

변 수	문 항	측 정
범죄피해 경험	작년 1년 동안 여덟 가지 범죄 유형으로 인한 피해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0=없다, 1=있다
범죄피해 가능성	① 살고 있는 집에 강도가 침입하거나 도둑이 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개인적으로 강도나 절도, 소매치기,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아주 낮다 2=낮은 편이다 3=그저 그렇다 4=높은 편이다 5=아주 높다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① 우리 동네에는 주위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② 우리 동네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내버려 둔 빈집이나 빈터가 있다. ③ 우리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④ 우리 동네에는 불량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이웃 간의 유대	① 우리 동네의 이웃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② 이웃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③ 이웃사람들은 물건을 빌려 쓰고 빌려주기도 한다. ④ 이웃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⑤ 이웃사람들은 동네의 각종행사 및 모임에 협조하여 참여 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동네 경찰활동 평가	① 우리 동네의 경찰들은 순찰활동을 잘하고 있다. ② 우리 집에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한다면 경찰은 즉시 출동할 것이다. ③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한다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 줄 것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동네 안전에 대한 평가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그저 그렇다 4=동의하는 편이다 5=전적으로 동의한다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	우리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그저 그렇다 4=동의하는 편이다 5=전적으로 동의한다
범죄정보 획득 매체	범죄사건에 대한 소식이나 내용을 주로 무엇을 통해 얻고 있습니까?	1=가족, 2=친구, 3=이웃, 4=신문, 5=텔레비전, 6=라디오, 7=잡지, 8=기타

범죄피해 가능성,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이웃 간의 유대, 동네 경찰활동 평가 등의 변수는 2개 이상의 문항으로 복합 지수를 구성하였다. 각 변수들의 하위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수는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를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 가능성 .717,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643, 이웃 간의 유대 .889, 동네 경찰활동 평가 .743으로 분석되어 복합 지수의 구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변수의 특성과 상관관계

회귀모형을 평가하기에 앞서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자. <표 5>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것이다.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13세부터 87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37.3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교육수준은 11.6년으로 고등학교 졸업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5〉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수	N	최소	최대	평균	SD
sex 성별(남자=1)	2,100	0	1	.50	.50
age 연령	2,100	13	87	37.32	15.24
edu 교육수준	2,098	0	18	11.57	3.61
xa 범죄피해 경험(있음=1)	2,100	0	1	.21	.41
xb1 범죄피해 가능성	2,096	2	10	5.37	1.61
xb2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2,086	4	16	8.27	2.00
xc1 이웃 간의 유대	2,089	5	20	13.06	3.10
xc2 동네 경찰활동 평가	2,091	3	12	7.71	1.63
xd1 동네의 안전에 대한 평가	2,097	1	5	3.01	.85
xd2 사회의 안전에 대한 평가	2,099	1	5	2.46	.83
xe1 범죄정보 획득매체(TV=1)	2,100	0	1	.77	.42
xe2 범죄정보 획득매체(신문등=1)	2,100	0	1	.18	.38
y1 전국의 범죄추세(증가=1)	2,099	0	1	.85	.36
y2 전국-동네 범죄추세(전국 증가=1)	2,096	0	1	.69	.46

조사 대상인 여덟 가지 유형의 범죄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1%로 집계되었다. 범죄피해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에 비해 낮다는 평가가 약간 우세하였고, 동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무질서하다는 평가보다 무질서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이웃 간의 유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으며, 동네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약간 우세하였다. 동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비슷한 반면, 전체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로는 텔레비전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신문을 비롯한 기타 언론 매체가 18%로 집계되었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대인관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하였다.

〈표 6〉 주요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변수	xa	xb1	xb2	xc1	xc2	xd1	xd2	xe1	xe2	y1	y2
xa	-										
xb1	.177 ***	-									
xb2	.101 ***	.156 ***	-								
xc1	-.042	-.097 ***	.008	-							
xc2	-.100 ***	-.176 ***	-.179 ***	.195 ***	-						
xd1	-.146 ***	-.326 ***	-.280 ***	.176 ***	.331 ***	-					
xd2	-.091 ***	-.135 ***	-.104 ***	.064 ***	.293 ***	.445 ***	-				
xe1	-.015	-.012	-.033	.048 *	.039	.061 **	.018	-			
xe2	.005	-.008	-.020	-.044 *	-.032	-.051 *	-.035	-.846 ***	-		
y1	.041	.071 **	-.036	.016	-.013	-.053 *	-.123 ***	-.006	.034	-	
y2	.013	-.096 ***	-.055 *	.054 *	.065 **	.091 ***	-.060 **	.009	.028	.490 ***	-

* $p < .05$, ** $p < .01$, *** $p < .001$

<표 6>은 회귀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사이의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는 분석 결과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들 사이에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큼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속변수의 하나인 전국의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전국의 범죄발생이 증가하였다는 평가)는 범죄피해 가능성, 동네의 안정에 대한 평가, 사회의 안전에 대한 평가 등 세 개의 독립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동네와 비교한 전국의 범죄추세 평가(=동네에 비해 전국의 범죄추세가 더 증가하였다는 평가)는 범죄피해 경험, 범죄정보 획득매체 등을 제외한 범죄피해 가능성,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이웃 간의 유대, 동네 경찰활동 평가, 동네의 안전에 대한 평가, 사회의 안전에 대한 평가 등의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평가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검토해본 결과 한편으로는 범죄발생 추세를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인식의 과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비해 전국의 범죄추세를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동네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인식의 편향이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는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의 과장과 편향된 인식을 어떤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과장과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이분변수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2분 변수, 범주형 변수, 정량적 변수 등 어느 경우든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선형회귀분석에 비해 변수의 선택에 유연성이 있다. <표 7>에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형1은 과장된 인식을, 모형2는 인식의 편향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표 7〉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모형1 (전국의 범죄추세)	모형2 (전국-동네 범죄추세)
sex 성별(남자=1)	-.270* (.132)	-.187 (.101)
age 연령	.015** (.005)	.000 (.004)
edu 교육수준	.091*** (.020)	.035* (.016)
xa 범죄피해 경험(있음=1)	.186 (.169)	.163 (.122)
xb1 범죄피해 가능성	.109* (.043)	-.110*** (.033)
xb2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058 (.034)	-.017 (.026)
xc1 이웃 간의 유대	.028 (.022)	.029 (.017)
xc2 동네 경찰활동 평가	.026 (.044)	.068* (.033)
xd1 동네의 안전에 대한 평가	.037 (.095)	.303*** (.073)
xd2 사회의 안전에 대한 평가	-.400*** (.087)	-.363*** (.069)
xe1 범죄정보 획득매체(TV=1)	.237 (.249)	.358 (.203)
xe2 범죄정보 획득매체(신문등=1)	.396 (.294)	.500* (.232)
상수	.273 (.738)	-.090 (.581)
예측성공률	85.1%	69.0%
-2LL	1654.798	2483.202
Nagelkerke R ²	0.064	0.053
모형 χ^2	76.643***	79.211***
df	12	12

* p<.05, ** p<.01, *** p<.00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S.E.)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자. 모형1의 -2LL은 1654.789이며 모형 2를 검토한 결과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모형2의 -2LL은 2483.202로 계산되었으며 모형 2를 검토한 결과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를 보면 범죄추세에 대한 과장된 인식을 분석하는 모형과 전국과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의 불일치를 분석하는 모형 모두 적절하게 추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의 과장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1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비롯하여 범죄피해 가능성, 사회의 안전에 대한 평가 등이 인식의 과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추세에 대해 과장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범죄추세를 더 과장되게 인식

하였으며, 사회의 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범죄추세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직접적인 범죄피해 경험 유무와 범죄정보 획득매체는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의 과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범죄정보 획득매체에 따라서 과장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라는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이웃 간의 유대, 동네 경찰활동 평가, 동네의 안전에 대한 평가 등 동네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역시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의 과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분석 결과 범죄추세의 과장된 인식은 일상생활 영역을 벗어나는 넓은 범위의 사회의 안전에 대한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동네라는 좁은 범위에 관련된 위험, 유대, 안전 등에 대한 평가의 영향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추세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 범죄피해 경험 유무에 의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범죄추세에 대한 과장된 인식은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위험의 정도 보다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경험 범주로서의 동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보다 직접적인 경험 범위를 벗어나는 넓은 범주로서의 사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의 편향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2에서는 교육수준, 범죄피해 가능성, 동네 경찰활동 평가, 동네의 안전에 대한 평가, 사회의 안전에 대한 평가, 범죄정보 획득매체(신문 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국에 비해 동네의 범죄추세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전국에 비해 동네의 범죄추세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약하다. 동네의 경찰활동과 동네의 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리고 사회의 안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전국에 비해 동네의 범죄추세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정보 획득매체의 영향은 텔레비전은 분명하지 않은 반면 신문·잡지 등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1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던 성별과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경험 유무,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이웃

간의 유대, 범죄정보 획득매체(TV) 등은 전국에 비해 동네의 범죄추세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분석 결과 전국에 비해 동네의 범죄추세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편향은 범죄피해의 경험 유무라는 객관적인 사실 보다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이라는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받아온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 이웃 간의 유대와 같은 변수들은 범죄추세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범죄추세 평가의 불일치는 동네와 사회의 안전에 대한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전국과 비교하여 동네의 범죄추세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의 편향은 범죄의 피해 또는 범죄의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인보다는 다소 넓은 안전에 대한 평가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요약 및 논의

범죄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임에 분명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에서 드러난 일반인의 범죄 인식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의 하나인데, 외국의 조사연구에서 밝혀진 범죄추세에 대한 과장된 인식과 편향이라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범죄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는 범죄발생의 객관적인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범죄발생 추세에 대해서 일반인은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보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범죄발생의 실태와 비교해보면 범죄발생 추세 평가는 범죄의 객관적인 실태에 비해 과장되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둘째, 범죄추세 평가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는 무작위로 분포하지 않으며 일관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 인식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범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향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범죄추세 인식에 있어서 자신에게 근접한 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자기중심적인 편향이라고 이해하였다.

일반인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검토한 다음, 범죄에 대한 과장된 인식과 자기중심적인 편향에 대해 몇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가능한 설명을 탐색해 보았다. 범죄추세 평가에 있어서 일반인의 인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험적 요인과 표출적 요인, 언론매체의 영향을 주목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인의 범죄 현상에 대한 관심은 객관적인 사실 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

인간이 외부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과학철학 논쟁의 오래된 주제이다(이병기 · 이기웅, 1995: 21-25).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는데,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 역시 그러하다.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평가는 한편으로 객관적인 범죄 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가진 과장과 편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 또는 태도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 현상을 비롯한 사회 현상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고자 할 때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조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참고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의 인식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편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연구자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 결과를 얻을 우려가 있다. 조사연구에서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왜곡될 수 있으며, 그런 왜곡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서 발견되는 과장과 편향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은 현실 적합성이 높은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 · 집행하고 정책의 효과를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대책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가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경험에 근거를 둔(evidence-based)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결과 범죄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범죄 관련 요인을 넘어 사회 현상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논문은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관심과 태도에 관련된 변수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였다. 범죄피해조사는 범죄 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들이 주로 조사되는데 비해 범죄 이외의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드물다. 반대로 사회 현상에 대한 조사들은 범죄 문제에 관련된 문항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진 주제를 탐구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 논문이 가진 이런 한계는 앞으로의 조사연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 2011, “범죄의 두려움: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분석”, 『경찰학논총』, 제6권 제1호: 155-176.
- 박경래 · 김용호 · 최성락 · 김수동 · 성우제 · 임혜준, 2011,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 1999,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 2003,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107-126.
- 박순진 · 최영신, 1999,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한기 · 박순진, 2005,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범죄 · 심리학적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 · 이기웅, 1995,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 2000,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위험해석 모델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117-139.
- 이성식, 2003, “청소년폭력의 원인으로서 대인갈등상황에서의 권위보존동기”, 『한국사회학』, 제37집 제2호: 179-200.
- 신동준, 2009, “처벌의 효과: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191-216.
- 조은경, 199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29-51.
- 황지태, 2009,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80-303.
- 황지태, 2010,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2008년도 주요범죄 압수추

- 장”.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7-51.
- 최인섭 · 기광도, 1998,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박순진, 1995,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통계청, 2008, 『사회조사보고서』.
- Brantingham, P. & D. Butcher, 1986, “Perceived and actual crime risks”, in *Metropolitan Crime Patterns*, edited by Figlio, R., Hakim, S. & Renegert, R., NY: Criminal Justice Press.
- Brown, D. K., 2004, “Cost-benefit Analysis in Criminal Law”, *California Law Review*, 92(2): 325-372.
- Cohen, M. A., 2000, “Measur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crime and justice”, i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Crime and Justice*, edited by LaFree, G., *Criminal Justice*, 2000(4): 263-315,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 Davis, B. & K. Dossetor, 2010, “(Mis)perceptions of crime in Australia”, *Trend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no. 396,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Duffy, B., R. Wake, T. Burrows & P. Bremner, 2008, “Closings the gaps - crime and public percep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22: 17-44.
- Felson, R. B., 1978, “Aggression as Impression Management”, *Social Psychology*, 41: 201-213.
- Gibson, C. L., J. Zhao, N. P. Lovrich & M. J. Gaffney,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3): 537-564.
- Hough, M. & J. Roberts, 2004, *Youth Crime and Youth Justice: Public Opinion in England and Wales*, London: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Research.

- Innes, M., 2004, "Crime as a Signal, Crime as a Memory", *Journal for Crime, Conflict and Media*, 1(2): 15 - 22.
- Jackson, J., 2004, "Experience and expression: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t in the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6): 946-966.
- King, A. & S. Maruna, 2009, "Is a conservative just a liberal who has been mugged? Exploring the origins of punitive views", *Punishment Society*, 11: 147-169.
- LaGrange, R. L., K. F. Ferraro & M. Supancic, 1992,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29: 311-334.
- Lerner, M. J. & D. T. Miller,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 1030-1051.
- Luckenbill, D. F., 1977, "Criminal Homicide as a Situated Transaction", *Social Problems*, 25: 176-186.
- Maguire, K. & A. L. Pastore, 1999,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Polk, K., 1994, *When Men Kill: Scenarios Masculine Viol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erts, L. & D. Indermaur, 2009, "What Australians think about crime and justice: Results from the 2007 Survey of Social Attitudes",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 101.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Ross, L., M. R. Lepper & M. Hubbard, 1975, "Perseverance in Self-Perception and Social Perception: Biased Attributional Processes in the Debriefing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5): 880-892.
- Ross, M. & F. Sicol, 1979, "Egocentric Biases in Availability and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3): 322-336.
- Scully, D. & J. Marolla, 1984, "Convicted Rapists' Vocabulary of Motive: Excuses and Justification", *Social Problems*, 31: 530-544.
- Smith, T. W., 1998, "An Analysis of Public Evaluations of Neighborhoods,

Communities, and the Country”,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Tyler, T. R. & R. J. Boeckmann, 1997,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but why? The psychology of public support for punishing rule breakers”, *Law and Society Review*, 31: 237-265.

Walster, E., 1966, “The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508-516.

Warr, M., 1995, “Public opinion on crime and punishment”, *Public Opinion Quarterly*, 59: 296-310.

Weatherburn, D. & D. Indermaur, 2004, “Public perceptions of crime trends in New South Wales and Western Australia”, *Crime and Justice Bulletin: Contemporary Issues in Crime and Justice*, no. 80, Sydney: 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Misperception and Bias in Personal Evaluations on Crime Trends

Park, Soon Jin*

The study is on the misperception and bias which is found in personal evaluations on crime trends. Though a lay-person seldom experiences crime, he conceives exaggerated perceptions of crime problems. While crime is seen as a negative social problem and man hardly wants to experience it, the personal perception of crime can be characterized as biased to the direction of personal interests.

It analyses data for the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in 1999. The KCVS surveyed consecutively the questions which request the respondents to evaluate the crime trends of the nation as a whole and of his own community respectively.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neutral evaluations are dominant for the crime trends of his own community while negative evaluations are dominant for the crime trends of the nation as a whole.

It suggests that the imbalance between the neutral evaluations for his own community and the negative evaluations for the nation could be seen as a self-serving evaluation bias which is relevant to the attribution bias. It summari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isperception and bias and tries to explain them in the context of experience and expression.

- ❖ Key words : crime victimization survey, crime trends of the nation,
crime trends of the community, misperception of crime trends,
self-serving evaluation bias

투고일 : 9월 1일 / 심사(수정)일 : 9월 14일 / 게재확정일 : 9월 14일

* Daegu University